

# 2분기 일자리 증가폭 5분기 연속 둔화...20대 이하 3분기째 ↓

## 통계청, '2023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일자리 37.9만개 증가...76.5%는 노인 일자리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38만개 늘었지만, 증가폭은 5분기 연속 둔화했다. 늘어난 일자리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였으며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3분기 연속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58만4000개로 1년 전보다 37만9000개 증가했다. 증가폭은 2021년 4분기(37만6000개) 이후 가장

작았다. 분기별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2분기 62만8000개, 3분기 59만7000개, 4분기 49만1000개, 올해 1분기 45만7000개에 이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둔화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개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의 76.5%는 노인 일자리인 셈이다. 주로 보건·사회복지(7만6000개), 제조업(4만7000개),

사업·임대(3만1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 일자리는 9만7000개 늘었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5만6000개, 3000개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6만8000개 줄었다. 지난해 4분기(-3만6000개), 올해 1분기(-6만1000개)에 이어 3분기 연속 감소세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도소매(-2만4000개), 공공행정(-1만4000개), 사업·임대(-1만3000개) 등에서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일자리는 14만9000개, 여성은 23만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은 56.6%, 여성은 43.4%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10만8000개), 숙박·음식(5만1000개), 제조업(4만9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보건·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업(7만개)과 보건업(3만7000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숙박·음식도 음식점 및 주점업(4만6000개), 숙박업(5000개)에서 늘었다.

건설업(1만9000개)도 11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1분기(9만2000개)보다 둔화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기타 운송장비(1만1000개), 자동차(8000개), 금속가공(7000개) 등이 증가했으나 섬유제품(-5000개), 고무·플라스틱(-4000개), 가구(-2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소분류로는 자동차 상품 부품(7000개), 통신·방송장비(7000개), 일차전자·축전지

(7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전자부품(-1만개), 플라스틱제품(-3000개), 낙농제품·빙과류(-2000개) 등에서 줄었다.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종사한 지속 일자리는 1443만6000개(70.1%)였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56만3000개(17.3%),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 258만6000개(12.6%)로 집계됐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0만6000개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회사법인(26만9000개), 회사 이외의 법인(7만3000개), 정부·비법인단체(2만7000개), 개인 기업체(9000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김수권기자

## 국산밀 간식으로 따뜻한 겨울나기...오아시스 마켓 20% 할인



### 농식품부, 국산밀 소비 촉진 오늘부터 2주간 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프리미엄 식품 전문유통업체 오아시스(OASIS) 마켓과 함께 국산밀을 원료로 만든 봉어빵, 찐빵, 호떡, 칼국수 등 다양한 제품을 20% 할인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45개 업체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147개 국산밀 우수 제품을 선보인다.

온라인 행사(www.oasis.co.kr)는 27일부터 12월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봉어빵, 찐빵, 호떡 등 소비자 반응이 좋은 국산밀 제품으로 구성된 겨울 간식 기획전을 마련했다. 김희면기자

온라인 행사 직후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유통인구가 많은 서울 잠실 석촌호수와 한성대 지점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이어진다. 오프라인 행사 기간에는 특별 이벤트로 매일 매장 방문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우리집 수제비'를 무료 증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산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소비자들의 식생활 트렌드, 소비 행태 변화 등을 고려해 식품·유통업계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김포족·김장족 모두 잡아라" CJ 비비고 vs 대상 증가 '김치전쟁'

김장철을 맞아 식품 업계에선 자사물을 통한 김치 판매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김장을 하지 않는 이들을 뜻하는 '김포족'을 위해 다양한 김치 제품을 내놓고, 반대로 '김장족'을 공략한 절임배추와 양념소 등을 함께 판매하는 식이다.

대상은 '중가 김장대전'을 통해 포장김치부터 양념, 소금까지 내놨다.

CJ제일제당 역시 '우리집 김장은 비비고' 기획전을 통해 관련 제품을 출시했다.

풀무원의 김치를 만들어볼 수 있는 키트를 공개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상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 정원e샵을 통해 김치 브랜드 종가의 '2023 중가 김장대전' 본판매를 진행한다.

중가 김장대전에선 김포족과 김장족 모두 합리적으로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00% 국내산 재료와 최고 품질의 배추로 만든 포장 김치를 비롯해 김장양념, 액젓, 맛술, 소금 등 김장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가격은 '중가 갈무리원 김장김치 10kg' 9만9800원, '중가 갈무리원 총각김치 5kg' 5만7100원, '중가 갈무리원 열무김치 2.5kg' 3만2700원, '중가 갈무리원김장양념 5.5kg' 5만9990원이다.

평소 구매하기 어려웠던 10kg 대용량 김치를 제공하고, 김장을 하지 않는 이들 뿐만 아니라 김장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위해 절임 배추와 양념까지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최근 1~2인 가구와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김장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올해 3월 발간한 '김치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가구

### 자사물 통해 포장 김치부터 재료까지 할인전



의 김치 조달 방법 가운데, 포장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은 2017년 10.5%에서 2020년 31.3%로 확대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김장철을 맞아 '우리집 김장은 비비고' 기획전을 연다. CJ더마켓에서 진행하는 본행사에선 국내산 절임배추와 김치 양념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대용량으로 김치를 담그기 힘든 1~2인 가구를 위해 국내산 절임배추3kg과 김치 양념 1.5kg을 세트로 묶은 '비비고 김장 키트'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대용량으로 김장을 담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해선 절임배추10kg과 김치 양념5kg을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가격은 '비비고 베이직 포기배추김치 10kg' 4만9629원, '비비고 썰은배추김치 3kg' 1만

8444원, '비비고 김장 절임배추 10kg' 3만9920원, '비비고 김장 양념소 5kg' 4만9920원이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아이들이 김장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풀무원푸드머스의 영유아 맞춤형 전문 브랜드 폴스키즈는 '전통김치 만들기 키트' 3종을 출시했다.

'사과백김치 만들기 키트'는 12인분 분량을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국내산 배추와 소금으로 만든 절임배추, 사과로 맛을 낸 사과백김치 양념 20로 구성했다. 가격은 4만원이다.

맵지 않은 국내산 김치 양념소와 무 등으로 꾸민 '홍시각두기 만들기 키트', 국내산 절임배추와 순한맛 고춧가루에 토마토를 더한 '신선 아삭김치 만들기 키트' 역시 같은 가격대에 제공한다. 서선욱기자

## 수산물 최대 60% 할인...내달 13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 등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

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바다장어, 굴 등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14개 마트(1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이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 신세계백화점, '맘&베이비 박스' 3종 출시

신세계백화점이 유아 전문 브랜드와 손잡고 출산·육아용품 선물 세트 '신세계 맘&베이비 박스' 3종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계 맘&베이비 박스는 신세계백화점이 유아복 브랜드 '암소바'와 '에프와'의 신생아 용품을 엄선해 구성된 선물 꾸러미다. 연말 시즌을 맞아,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에서만 한정 판매한다.

신생아 육아에 꼭 필요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춘 인기 상품을 신세계백화점 바이어가 직접 골라 구성한 기획 세트로, 단품으로 하나씩 구매하는 것보다 2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먼저 '암소바X신세계 맘&베이비 박스(1종)'는 신생아 필수 용품 7품목을 담았다.

플라스틱이 아닌 옥수수 원료로 만든 '옥수수 사출 팔랑기 세트'를 비롯해 배냇수트와

신생아용 '울인원 클렌저', 애착 인형 등 28만9000원 상당의 아기 용품 세트를 18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에프와X신세계 맘&베이비 박스'는 2종으로 준비했다. 속사보와 치발기, 양말베개, 배내저고리, 방수우 등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들로 골라 구성된 8품목 세트(18만원대)와 블랭킹(담요) 상품이 추가로 포함된 9품목 세트(28만원대)가 있다.

한편 아이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유아동 상품 매출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특히 선물 수요가 크게 늘었다. 최근 6개월간(5~10월)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에서 아동복이나 아기 용품이 '선물하기'로 판매된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2% 올랐다.

오유나기자

## 롯데백화점, '하이브'와 손잡고 BTS 상품 판매

### '세븐틴'·'투모로우바이투게더'·'엔하이픈' 아티스트 관련 상품

롯데백화점이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 '하이브'와 손잡고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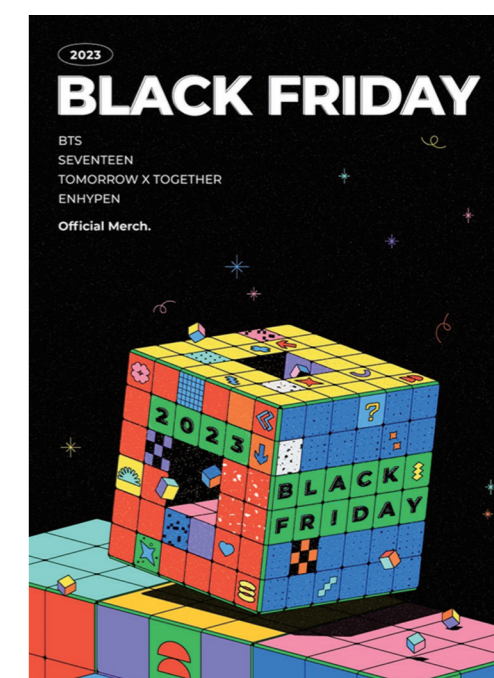
먼저, 오는 27일부터 12월10일까지 총 600여종의 인기 아티스트 관련 상품들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의 로고나 일러스트 등이 담긴 의류, 가방, 액세서리, 문구 등을 일괄적으로 70% 할인한다.

그 외에도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및 팬미팅 현장이 담긴 DVD 등의 영상출판물도 50~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컬래버레이션 상품도 단독으로 재출시한다. 특히, 지난 2021년 출시한 'BTS X 맥도날드' 컬래버레이션 티셔츠와 양말, 키링 등을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념해 특별히 선보인다.

또 구매 고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행사 기간 중 롯데백화점몰과 롯데온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 상당의 L.POINT(엘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슬비기자